

「대학 RISE 사업단 현황 조사 결과」

[대학라이프지원센터, 2025. 12.]

□ 대학 RISE 사업단 현황 조사 개요

○ 조 사 명: 대학 RISE 사업단 현황 조사

○ 대 상: RISE 참여 일반 4년제 대학 총 193*개교(본교, 분교, 캠퍼스 포함)

* RISE는 광역지자체 내 소재 대학 지원이 원칙이므로 대학이 본교와 다른 광역시도에 분교 및 캠퍼스가 소재한 경우, 분교 및 캠퍼스도 각 개별 대학으로 처리하며, 컨소시엄(참여)만 운영하는 대학 및 경기도 추가 선정 대학('25. 11. 4.) 포함

○ 조사기간: 2025. 11. 20.(목) ~ 12. 03.(수)

○ 조사방식: 온라인 조사

□ 대학 RISE 사업단 현황 조사 응답 결과

○ 조사 응답 학교 수: 총 123개교*(응답률 63.7%)

* 총 127개교가 응답하였으나 중복 및 불성실 응답 4개교 제외

- RISE 참여 대학 소재지별 응답 학교 수 및 응답률

[표 1] 소재지별 대학 RISE 사업단 현황 조사 응답 학교 수 및 응답률

(단위: 개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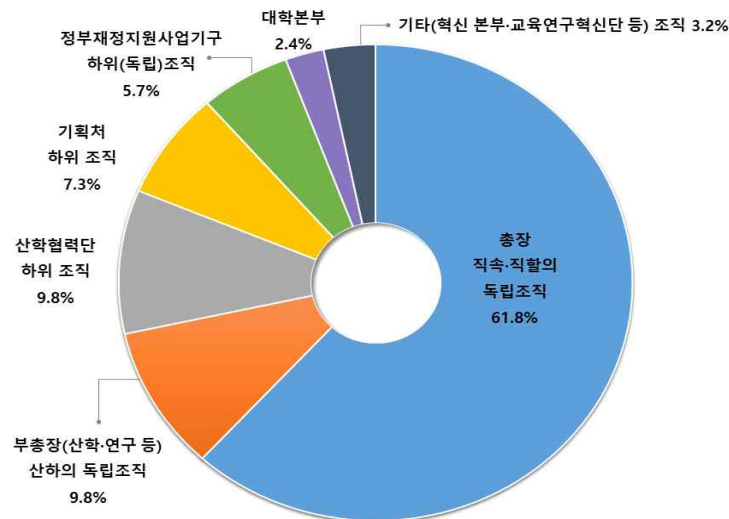
No.	소재지	조사 대상 학교 수	응답 학교 수	응답률
1	서울특별시	26	18	69.2
2	부산광역시	13	12	92.3
3	대구광역시	3	3	100.0
4	인천광역시	8	6	75.0
5	광주광역시	10	7	70.0
6	대전광역시	9	4	44.4
7	울산광역시	1	1	100.0
8	세종특별자치시	4	2	50.0
9	경기도	36	23	63.9
10	강원특별자치도	9	7	77.8
11	충청북도	13	6	46.2
12	충청남도	18	12	66.7
13	전북특별자치도	8	3	37.5
14	전라남도	8	4	50.0
15	경상북도	17	11	64.7
16	경상남도	9	4	44.4

17	제주특별자치도	1	0	0.0
총 계		193	123	63.7

□ RISE 사업단 조직 현황

○ RISE 사업단의 교내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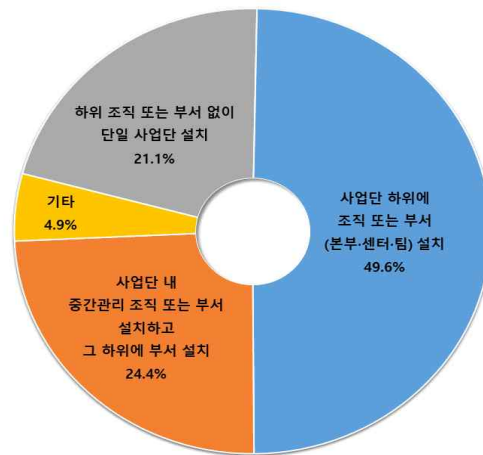
- 대학 내에서 RISE 사업단은 (총장 직속·직할) 독립조직(76개교, 61.8%)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었고, 그 뒤를 이어 부총장(산학·연구 등) 산하의 독립조직(12개교, 9.8%)과 산학협력단 하위 조직(12개교, 9.8%)으로 나타났으며, 기획처 하위 조직(9개교, 7.3%), 정부재정지원사업기구 하위(독립)조직(7개교, 5.7%), 기타(혁신 본부·교육연구혁신단 등) 조직(4개교, 3.2%), 대학 본부(3개교, 2.4%)에 설치됨



[그림 1] RISE 사업단의 교내 위상

○ RISE 사업단의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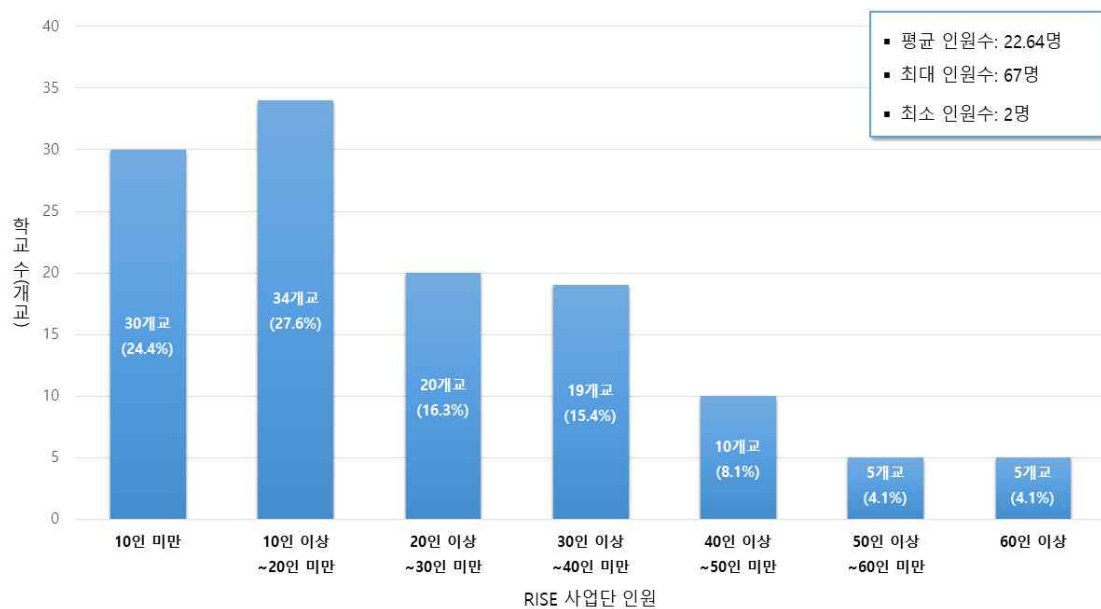
- 응답 학교 총 123개교 중 RISE 사업단 하위에 조직 또는 부서(본부·센터·팀 등)를 설치한 학교가 61개교(4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RISE 사업단 내 중간관리 조직 또는 부서를 설치하고 그 하위에 부서를 둔 학교는 30개교(24.4%)로 나타났으며, RISE 사업단이 하위 조직 또는 부서 없이 단일 사업단으로 설치된 학교는 26개교(21.1%)이며, 기타는 6개교(4.9%)로 나타남



[그림 2] RISE 사업단의 조직 구성

○ RISE 사업단의 인원 구성

- 응답 학교 총 123개교의 RISE 사업단 구성 인원수의 평균은 22.64명으로, 최대 67명, 최소 2명으로 확인됨. 인원 규모별로는 10인 이상 ~ 20인 미만이 34개교 (27.6%)로 가장 많이 나타남



[그림 3] RISE 사업단의 인원 구성

□ RISE 사업단장 겸직 여부 및 유형, 교무위원 여부

○ 사업단장 겸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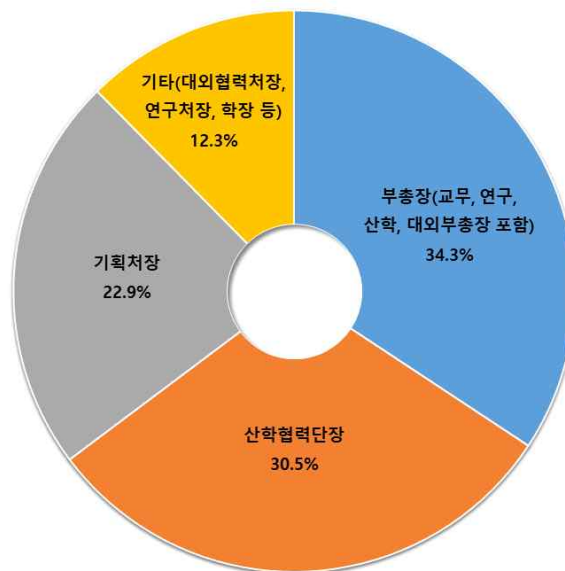
- 응답 학교 총 123개교 중 사업단장을 겸하고 있는 학교 수는 105개교(85.4%)로 나타나 주로 사업단장 외에 다른 직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사업단장 겸직 여부

○ 사업단장 겸직 유형

- 사업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105개교 중 부총장직(교무, 연구, 산학, 대외부총장 등 포함)을 겸하고 있는 학교가 36개교(34.3%)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산학협력단장 32개교(30.5%), 기획처장 24개교(22.9%) 순으로 나타남. 이 외에도 기타(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학장 등) 13개교(12.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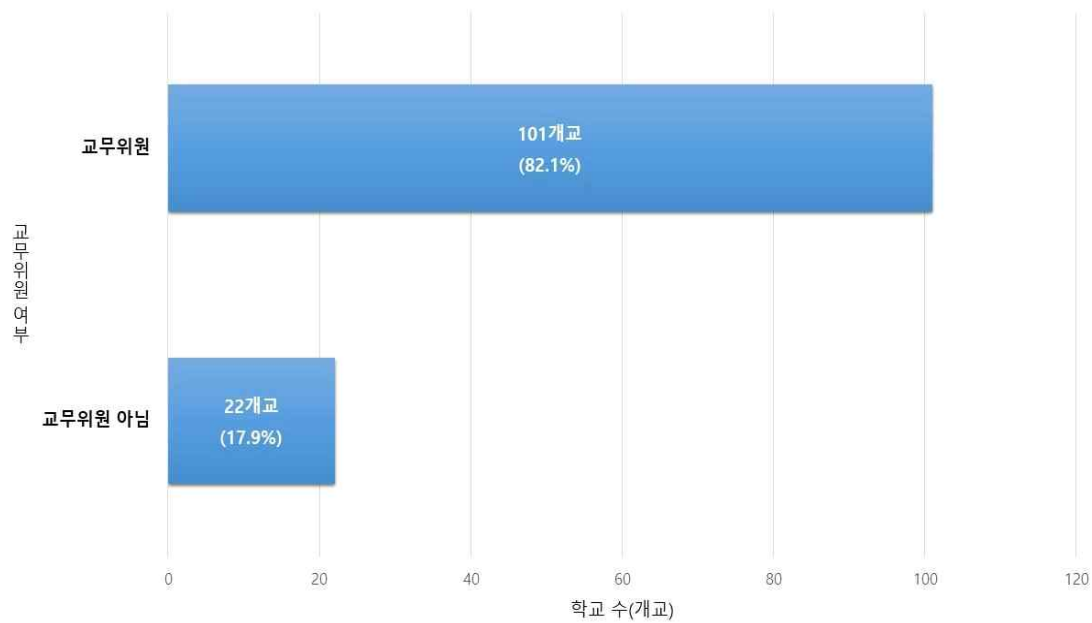


[그림 5] 사업단장 겸직 유형

○ 사업단장의 교무위원 여부

- 응답 학교 총 123개교 중 사업단장이 교무위원인 학교 수는 101개교(82.1%)로

나타나 사업단장은 주로 교무위원 급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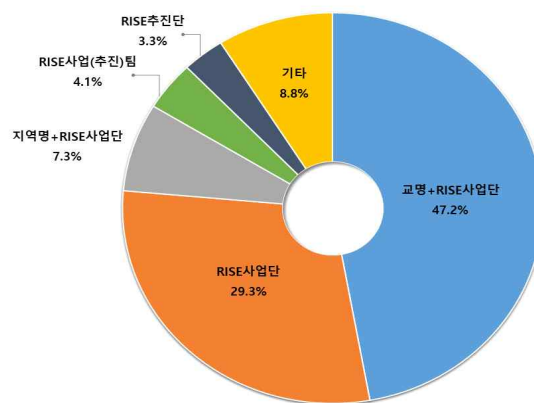


[그림 6] 사업단장 교무위원 여부

□ RISE 참여 대학의 사업단 명칭 유형

○ 사업단 명칭 유형

- 사업단 명칭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교명+RISE사업단(58개교, 47.2%)’이며, 그 다음 ‘RISE사업단(36개교, 29.3%)’, ‘(분교 또는 캠퍼스 소재지 구분을 위한)지역명+RISE사업단(9개교, 7.3%)’ 순으로 나타남. 이 외에도 ‘RISE사업(추진)팀(5개교, 4.1%)’, ‘RISE추진단(4개교, 3.3%)’ 등으로 나타남. 기타 명칭으로는 ‘(지)산학협력단, 사업본부, 학교 자체 작명’ 등으로 나타남



[그림 7] 사업단 명칭 유형

□ 시사점

- 대학 RISE 사업단 현황 조사 결과, 대학들은 RISE 사업단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총장 직속의 독립적인 전략 기구로 구성하고, 산학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추진함으로써 대학 및 지역의 혁신을 위한 핵심 동력

으로 RISE를 인식함

- 대학 책임자의 직접 참여와 높은 위상: RISE 사업단장은 부총장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단장 대부분이 교무위원 급으로 나타남. 이는 대학이 RISE를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대학의 핵심적인 거버넌스 및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총장 직속의 독립적 역할 강조: RISE 사업단의 교내 위상은 총장 직속 독립기구 형태가 가장 우세함. 이는 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략적인 추진력 확보를 위한 조직 구조를 채택했음을 의미하며, 사업의 목표 달성에 대한 대학 본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시사함
- 산학협력 분야와의 높은 연계성: RISE 사업단장은 산학부총장을 포함한 산학협력 단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RISE 추진 시 지역 산업 연계와 산학협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적정 수준의 인력 규모 확보: RISE 사업단의 평균 인원수는 22.64명으로,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규모가 가장 많음. 이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운영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사업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을 시사함